

美 5·18 기밀자료 공개, 시민사회가 나섰다

5·18행사위 온라인 공개 청원 미군 상황일지 등 10개 자료 지목 내일 공개 촉구 시도민 선언 회견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미국 정부의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당시 발표 명령자·헬기 사격·행방 불명자 등을 밝혀내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5·18관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에 한정돼 5·18 미국자료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5월 단체와 광주·전남시민단체까지 본격적인 행동을 나서면서 미국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20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5·18행사위)에 따르면 5·18 행사위는 지난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5·18행사위는 미국이 공개해야 하는 10여건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미국 국무성·CIA에서 이미 공개한 문서 중 삭제 조항이 없는 원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NSC)·백악관 상황실·국방부 등이 1979~1980년 작성한 한국·광주 관련 기밀문서,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령부·미국 제8군과 미국 국방부 간에 오고 간 전문,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 원본,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 등이다.

행사위는 이번 청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그동안 공개된 미국 자료는 대부분 국무부 소유로 국한돼 있고 공개된 자료마저 상당 부분이 삭제돼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

는데 한계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1989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당시 미국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과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미국 팀 셔록 기자가 1996년 '체로키파일'로 불리는 2000여건의 미국 정부 기관 비밀해제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5·18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5·18 연구자 사이에서는 미국정부가 1973~1983년 아르헨티나 비델라 군사정권을 비호한 내용이 담긴 비밀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해 진상규명을 지원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 5·18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과 민주평

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등도 보도자료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 같은 한국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5·18행사위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5·18시국회의,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진보연대 등 5월 단체, 광주시민단체가 함께한다.

나인옥 5·18행사위 사무차장은 "당초 518명의 서명만 받으려고 했지만 전국 단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미국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전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5·18진상규명 작업에 스스로 나서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달뜨기 21:55
해질 19:34 달집 07:13

큰 일교차

아침기온 푹 떨어지고 바람불어 쌀쌀하겠다.

광주	맑음	11/24	보성	맑음	7/24
목포	맑음	14/23	순천	맑음	12/26
여수	맑음	13/24	영광	맑음	11/23
나주	맑음	8/24	진도	맑음	9/23
완도	맑음	12/25	전주	맑음	11/24
구례	맑음	7/25	군산	맑음	12/22
강진	맑음	9/24	남원	맑음	7/24
해남	맑음	7/23	흑산도	맑음	14/23
장성	맑음	8/2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남	0.5~1.0	남서~서	0.5~1.0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남바다(동)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남바다(서)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00 21:00	03:53 15:49
여수	간조	만조
	04:31 16:23	10:28 23:06

◇ 주간 날씨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12/27	14/30	15/31	16/31	17/28	17/26	16/26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동구 소태천 생태계 회복 도랑 살리기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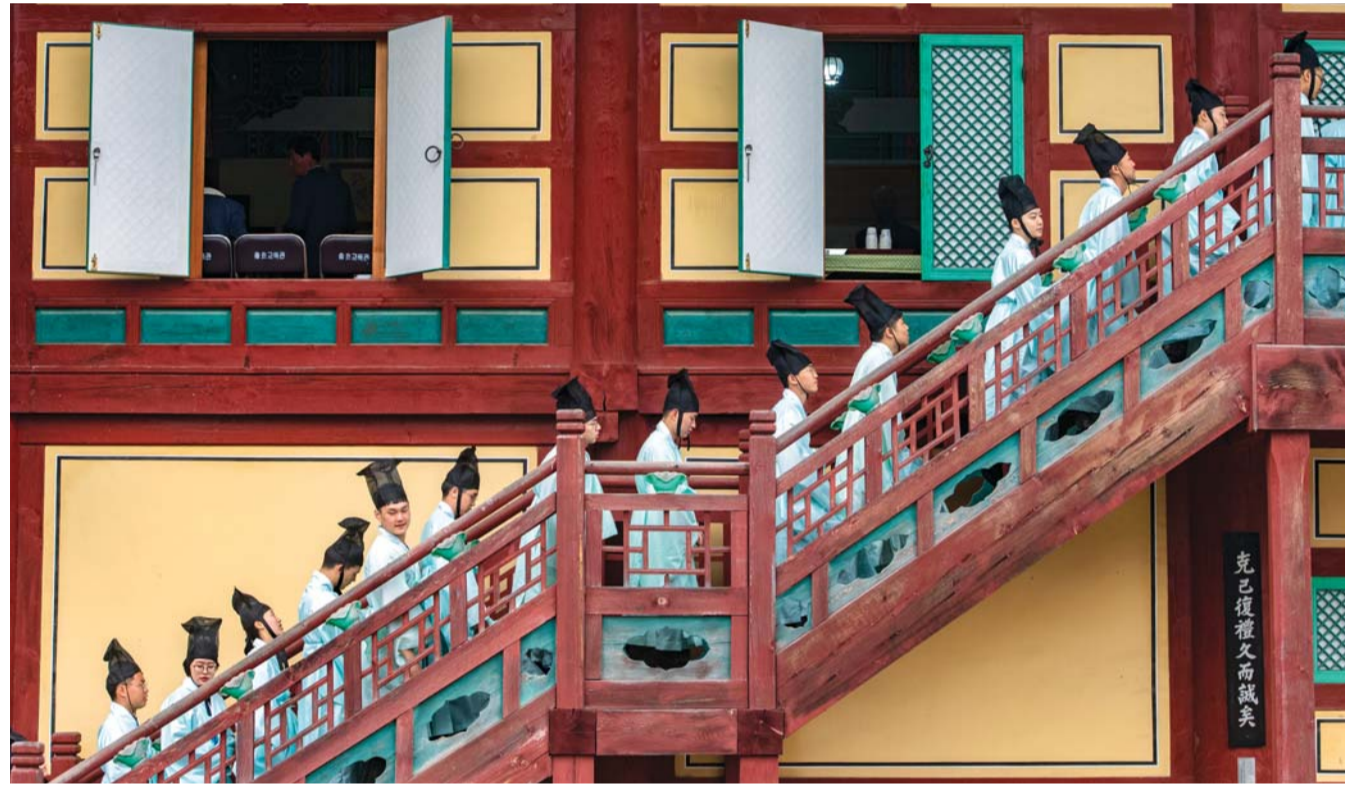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가 소태천 생태계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이날 동구청 접견실에서 소태마을주민대표, 광주전남녹색연합, K-water영산강보관리단과 '주민참여형 도랑 살리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환경부가 주관한 '2019년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소태천이 선정되며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동구는 관련 기관, 주민과 함께 앞으로 예산 1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도랑 수질관리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도랑환경정비, 수질정화시설 식재, 민관공동 환경정화활동, 주민·학생 대상 환경교육, 생태·수질조사, 오염원유입방지대책수립 등이다.

한편 소태천은 소태제에서 발원해 영산강 지류인 광주천으로 흘러드는 도심하천으로 최근 상류지역에 두꺼비, 도롱뇽 등이 발견되는 등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하지만 인근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비료, 마을오수 유입 등으로 하류지역에는 매년 조류에 보개가 발령될 만큼 수질이 악화됐다. /김용희 기자 kimyh@



성인으로 가는 계단

'성년의 날'인 20일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에서 성년을 맞이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성년례에 참석하기 위해 복식을 차려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 10명 중 8명 "5·18 역사왜곡처벌법 필요"

기념재단 5·18 인식조사

진상규명 미흡 이유는

24% "가해자 진술 거부 때문"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4명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2019년 5

'18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나우엔피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3~15일 3일간 진행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5%가 '몰라'고 답했다. '몰 다 모른다'는

28.0%, '특별법 제정은 알고 있다'는 20.6%,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는 10.9%였다.

국민들은 '5·18진상규명'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거부' (24.6%)를 첫번째로 꼽았고,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교육·노동·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광주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단체들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라면서 "특히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3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돼 수십명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

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반민주 행위"라면서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30주년 생일(5월 28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법외노조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전국적인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등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집중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 행사용 다회용품 무료 대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하나로 철제 컵 등 행사용 다회용품 무료대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진행하는 '1회용품 없는 축제 확산프로젝트'의 하나로 기획됐다. 광주지역에서 행사를 여는 시민, 단체,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행사용 다회용품과 자원순환 홍보팸말을 무료로 빌려준다. 대여물품은 다회용 스텐 컵(480ml)

400개, 냉·온 물통(40L) 3개, 자원순환 홍보 현수막, 팸말 등이다. 사전예약 후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 동구 중앙로 254 6층)에서 필요수량을 대여하고, 7일 이내 원상복구 반납하면 된다. 예약은 전화(062-514-2470)로 하면 된다. 한편 광주환경연합은 자원순환 교육,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정책간담회,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